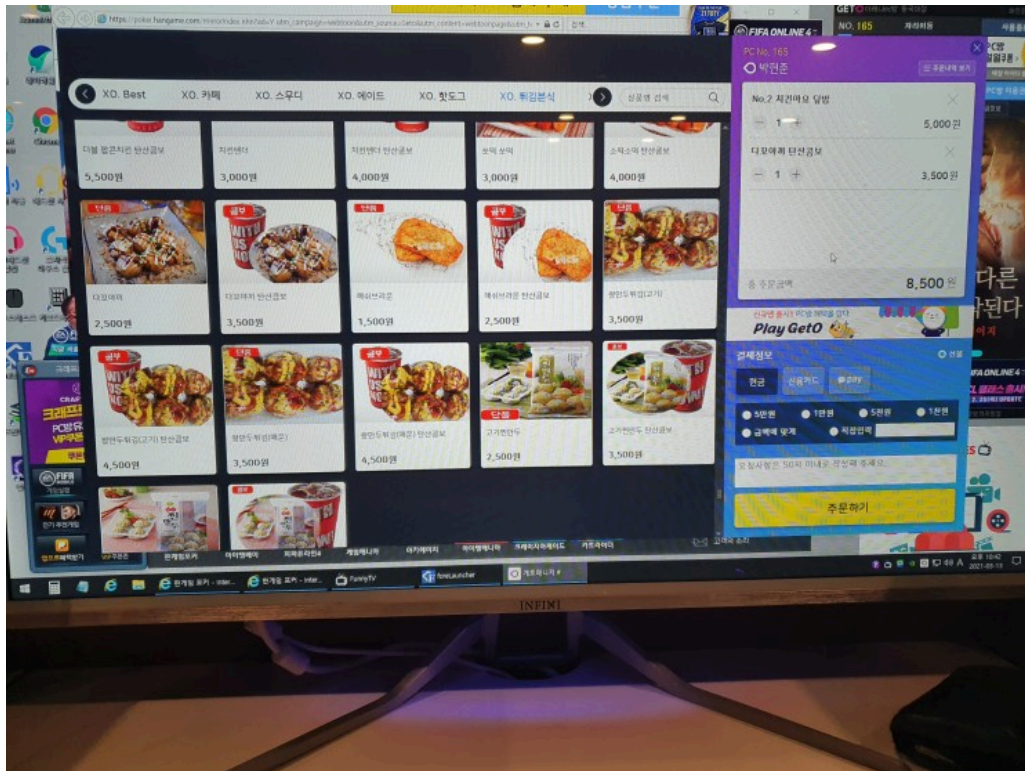


수도권 PC방 영업 제한이 풀려 24시간 이용이 가능하다. (2주 전 기준)

먹는 동안만 마스크를 벗고 취식도 가능하다.



정말 좋은 컴퓨터 하나 맞출 정도의 돈을 여기 PC방에 쓴 것 같다.

화면에 나오는 메뉴 중 치킨텐더만 빼고 다 먹어본 메뉴로 기억한다.

전부 맛있다.



다과야끼 탄산콤보(3,500원)와 No.2 치킨마요 덮밥(5,000원)을 주문했다.
가격도 좀 나가고, 게임하면서 먹는 게 편하진 않아서 PC방 음식은 잘 안 먹었는데
이게 또 나름의 매력이 있다.

데리야끼+마요네즈 소스 조합은 소스 맛이 다른 맛을 다 뛴지만 그만큼 소스가 맛있어서 들어가면 맛 없기도 힘들
다.
다만 덮밥에 얹은 후레이크가 좀 딱딱한 게 살짝 아쉽다.
그래도 가격 대비 양도 괜찮고 맛있었다.

주변에 다른 PC방이 많고 심지어 가격도 더 저렴한데도 왜 이 PC방을 자주 가나 생각해봤는데
시설이 좋은 것도 있지만, 역시 크고 좌석이 많은 게 가장 큰 이유인 것 같다.
보통 PC방을 여럿이서 가다 보니 특히나 많은 자리가 있어야 하는데, 작은 PC방은 자리가 없는 경우가 많으니까.

많은 시간을 보낸 만큼 추억이 많은 곳.



